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CLOSER TO NOWHERE

가제 : 한 걸음 더 가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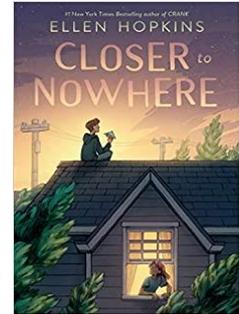
저자 : Ellen Hopkins

출판사: Penguin Random House USA

발행일: 2020년 10월 6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엘렌 홉킨스의 신작으로 잊을 수 없는 가족의 진실과 소속감이란 무엇인지 탐구하는 소설.**

한나는 행복한 아이였다. 한나에게는 언제나 자신을 지지해주는 든든하고 다정한 부모님이 있었고 학교에서 꽤 인기도 많은 학생인데다 특히 체육에 있어서는 언제나 우등생이었다. 하지만 사촌 칼이 한나의 집에 와 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한나는 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칼과 함께 지내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서로 너무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두 십대 소녀 소년이 함께 살아가며 부딪히는 과정과 가족간의 용서와 이해, 트라우마로 인한 아픔에 대해 그린 감동적인 소설이다.

한나의 삶은 언제나 완벽했다. 한나의 아빠는 컴퓨터 천재로 캘리포니아 일대를 돌며 일하고 있었고 한나의 엄마는 스튜디오에서 발레와 재즈댄스를 가르치는 강사였다. 한나는 외동딸로 늘 부모님과 함께 화목한 시간들을 보내며 행복한 아이로 자랐다. 하지만 3년 전 한나가 막 아홉 살이 되었을 무렵 한나의 이모는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한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버렸다. 카린 이모가 백혈병에 걸린 후 엄마는 간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두었고 다시는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아빠는 줄어든 수입을 메우기 위해 그 이전 보다 두 배로 일하며 전국을 돌아다니게 되었고 그 때문에 저녁 식사조차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예전과 달리 돈 문제 때문에 매일 같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다. 게다가 한나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관심을 포함한, 예전에는 홀로 누렸던 모든 것을 전부 사촌 칼과 공유하게 되었다.

카린 이모와 한나의 엄마는 단순한 자매가 아니라 쌍둥이 자매였고 서로에게 둘도 없는 반쪽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모는 이 곳에서 먼 애리조나에서 살았고 칼의 아빠를 만나 대학까지 그만 두게 된 바람에 외할머니와 급격히 사이가 나빠졌었다. 이모는 종종 아들 칼을 데리고 가족 모임에 참석했지만 늘 외할머니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한나의 엄마는 여전히 이모를 사랑했고 이모가 죽던 날 세상이 무너질 듯이 울었다. 이모의 장례식이 끝난 후 칼은 아빠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그 2년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칼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매번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던 칼의 아빠가 다시 감옥에 들어간 후 한나의 엄마는 칼을 집으로 데려왔다. 한나의 엄마는 그 동안 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먼저 묻지 말고 그가 직접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한나는 칼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칼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한나와 같이 쓰는 화장실을 더럽게 썼고 치약도 없이 이를 닦거나 아예 양치질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게다가 그는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고 언제나 화가 나있거나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런 칼의 책을 뺏거나 괴롭혔다. 그때마다 칼은 언제나 고통스럽게 울부짖었고 아이들은 칼의 모습을 보며 비웃기만 했다. 칼의 상담사에 따르면 칼의 행동장애는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뇌 반응과 트라우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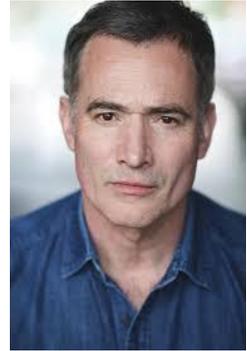
칼은 사실 가정 폭력 생존자였다. 칼이 어린 시절부터 칼의 아빠는 마약 문제로 감옥을 들락날락 했고 자주 칼의 엄마 카린을 때렸다. 그리고 칼이 여섯 살이었을 때 그는 역시 한 번 감옥에 다녀온 후 한동안은 괜찮아 보이더니 카린이 죽자 다시 마약에 손을 댔고 또 수감 되고 말았다. 칼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였고 특히나 성인 남자를 경계했기 때문에 한나의 아빠를 유독 멀리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한나의 부모님 역시 점점 더 많이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나는 칼이 자신과 얼마나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 점차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나의 아빠는 결혼 후 조용하고 살기 좋은 작은 동네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던 것과 달리 칼의 부모님은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대도시의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한나가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춤과 체조를 배우고 디즈니랜드로 놀러 다니는 동안 칼은 혼자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비디오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폭력적인 아빠와 아픈 엄마와 함께 지내야 했다. 한나는 칼이 자신과 똑 같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어땠는지 생각해보았고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해 나가면서 어쩌면 자신과 칼이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 후 출소한 칼의 아빠와 한나의 외할머니가 집에 찾아왔고 가족들 사이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흘렀다. 한나의 외할머니는 칼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칼의 아빠는 칼을 데려가려고 했다. 게다가 한나의 아빠는 계속 되는 엄마와의 갈등 때문에 한동안 집에서 나가 따로 살고 싶다는 통보를 했다. 한나와 칼은 마침내 어른들 틈에서 서로의 슬픔과 혼돈에 대해 함께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나와 칼은 행복한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까?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상처받은 아이들과 가족의 회복, 성장과 치유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엘렌 홉킨스 (Ellen Hopkins)는 전직 기자이자 어린 독자들을 대상으로한 20 권의 논픽션 책, 14권의 YA 베스트셀러 소설을 쓴 작가이자, 성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4권의 소설을 쓴 작가이다.

제목 : BIGFOOT MOUNTAIN
가제 : 빅풋을 찾아서
저자 : Roderick O'Grady
출판사: Firefly Press
발행일: 2021년 봄 예정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성장 / 문학 / 9-12세



*** 아름답게 묘사된 자연 세계를 배경으로 슬픔과 치유에 관해 이야기하는 모두가 공감할만한 따뜻하고 섬세한 소설.**

숲과 산을 돌아다니는 전설적인 빅풋의 존재는 여전히 북아메리카를 설레게 하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미니와 빌리, 이 두 친구들 역시 언젠가 한번쯤 그 환상적인 생명체를 만나 볼 수 있기를 꿈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니는 수상한 네 개의 발 자국을 발견하고 이 발자국들에 어떤 재미있는 단서가 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편 숲의 수호자 사스쿠아치족의 타야이 역시 이 숲 속에는 아직 자신은 모르고 있던 놀랍고도 흥미로운 세계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작품 속 두 화자인 미니와 타야이의 시선을 통해 각자 마음에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만나 아름답고 비밀스런 자연 속을 탐험하며 서로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가는 과정을 그린 따뜻하고 신비로운 모험담이다.

열두 살 소녀 미니는 최근에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산 속의 한 오두막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오두막 민박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새 아빠 댄과 단 둘이서 살고 있었다. 미니의 놀이터는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숲으로, 미니는 하루 종일 숲과 동물, 곤충들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 방학이 시작 되기 바로 전 날, 미니는 학교에서 집으로 오자마자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파랄던 하늘의 절반을 뒤 덮고 있는 회색 연기 구름을 발견했다. 하지만 문제는 연기뿐만 아니라 반대편 해안 가까이 있는 초록색 구름 섬 '에코 아일랜드'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무언가 번쩍이며 천둥까지 치고 있었다. 때마침 황금 독수리가 따뜻해진 공기를 가로 질러 미니에게 다가 왔고 미니는 저 먼 섬에서 발생한 불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절망적인 공황 상태에 처해 사방으로 달아나고 있을지 상상하며 걱정이 되었다.

미니는 새 아빠 댄에게로 달려갔고 지금 멀리 떨어진 숲에 불이 나는 바람에 헬리콥터들이 진화를 위해 하늘을 바쁘게 오가고 있으며 민박 손님들의 예약도 다 취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미니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엄마의 방으로 들어가서 엄마의 체취를 맡다가 문득 우울해졌고 자신과 달리 언제나 기운이 넘치는 유일한 이웃 친구 빌리를 찾아갔다. 미니는 빌리와 평소처럼 탐정 놀이라도 하듯이 숲 길에 남아있는 동물들의 발자국을 살펴 보며 그들의 행방을 좇던 중 짙은 갈색 토양 위에 움푹 파인 곳이 생겨나있는 것을 발견 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잎, 나뭇 가지, 나무 껍질, 소나무 바늘로 이루어진 한 층이 있었다. 게다가 그

모양에는 미니의 흥미를 자극하는 특징이 하나 있었다. 미니는 나뭇잎을 치운 후 그것이 발자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발자국은 분명 인간의 발자국을 닮아 있었지만 사람 발자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컸고 큰 발가락 네 개에 작은 발가락 하나가 붙어 있는 신기한 모양이었다. 그렇게 크고 이상한 발자국은 미니와 빌리 둘 다 처음 보는 것이었고 두 사람을 따라온 빌리의 반려견 무스토 역시 그 발자국이 나 있는 지점에서 위험을 감지했다는 듯 이리저리 냄새를 맡으러 다니며 킁킁대기 시작했다. 게다가 빌리는 미니에게 누군가가 자신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듯한 수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미니는 그 발자국의 정체에 대해 더 알아내고 싶었지만 빌리를 따라 일단 그곳에서 도망쳤다. 하지만 미니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발견했는지 알고 있었고 그 사실 때문에 잔뜩 흥분해 있었다. 미니는 그 발자국이 전설의 생명체 ‘빅풋’이라고 믿고 있었다.

다음 날 미니는 어제 보았던 그 발자국에 대해서 아빠 댄과 함께 알아보기 위해 일어나자마자 그에게 함께 소풍을 가자고 청했다. 하지만 댄은 그 큰 발자국을 발견하고선 사냥꾼들이나 보이 스카우트 단원들이 장난으로 가짜 발자국을 만들어 낸 것 같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반응했다. 그러나 미니는 댄이 그것이 가짜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그렇게 많은 발자국 사진을 찍어냈는지, 왜 총을 꺼낼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때 누군가가 정확히 조준해서 던지기라도 한 것처럼 댄의 어깨에 솔방울 하나가 날아와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는 댄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과 심지어는 자신을 싫어한다는 생각 때문에 서러웠고 가는 곳마다 엄마가 떠오르는 이 숲을 갑자기 떠나고 싶어졌다. 이런 마음을 읽은 댄은 미니를 달래주기 위해 빌리와 무스토를 데리고 산 등성이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울며 나타나더니 숲 속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늑대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 나무들이 차례로 쓰러지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댄은 분명 그 소리의 근원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무슨 일인지 입을 꼭 다물고 아이들을 대피시켰다. 미니는 까마귀들이 빅풋들의 보안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숲에서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미니는 코니의 엄마 덕분에 그 늑대 울음소리가 사실 원래 바다였던 이 곳이 숲이 되고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이곳에 살고 있었던 수호자들 즉 사스쿠아치들이 숲을 지키기 위해 벌목 때마다 그런 울음소리를 내며 다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사스쿠아치족의 타야이는 갑자기 일어난 산불과 벌목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다른 숲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타야이는 부모님의 경고를 잊고 인간인 미니와 빌리가 자신을 발자국을 관찰하며 재미있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후로도 타야이는 종종 두 사람을 보았고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빅풋의 정체는 정말 타야이였을까? 서로 너무 다른 친구들이 만나 벌어지는 흥미로운 모험담이다.

<저자 소개>

로데릭 오'그레이디 (Roderick O'Grady)는 런던에서 연기 경력을 시작한 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한 후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 성공을 거두었다. 이 책은 그의 첫 데뷔 소설 작품이다.